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

전미순¹

¹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eon, Misoon¹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From April 1st to April 22nd, 2021, data were collected from B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collected data from 111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the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ere 3.42 ± 0.25 , 3.87 ± 0.32 , and 4.00 ± 0.48 , respectively.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r = .485, p < .01$),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r = .592, p < .01$),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r = .469, p < .01$).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whe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is high,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fficacy are improv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trategies need to be continuously evolved and further education planned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by improving their level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Key words: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al effica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도 고속 성장하였다.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모자라는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외국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주요어: 간호대학생,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다문화효능감

Corresponding Author: Jeon, Misoon

(31065) 1, Baekseokdaehak-ro, Dongnam-gu, Cheonan, Chungnam, Republic of Korea

Tel: +82-41-550-0428, Fax: +82-41-550-2829, e-mail: jms@bu.ac.kr

투고일: 2022. 8. 4, 심사수정일: 2022. 8. 24, 게재확정일: 2022. 9. 25.

* 본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생활 터전에서의 오랫동안 생활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한진순, 2019).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변화하는 시기에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및 수용성 정도를 점검하고 다문화 효능감 등 다양한 문화 역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청년들은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활동 등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나, 대학생이 된 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접촉하는 등 일상을 공유하게 되므로 다문화사회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박현주 등, 2015). 대학생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되면 한국은 외국인 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대학생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박명숙, 2020; Baek, Kim, Kim, & Lee, 2016).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문화가 다른 간호대상자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픽은희, 박재순, 2013). 즉 향후 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자문화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문화 인식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과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김정수, 박진옥, 2015).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이나 졸업 후 의료현장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간호대상자를 만날 기회가 많으므로 문화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대상자를 대할 때 출신 국가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면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문화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다양성, 타 문화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관계성, 그리고 다른 인종·문화·집단별로 차이를 인정하는 보편성 등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안상수 등, 2015). 선행연구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교육 경험(정석원, 2014), 다문화접촉 경험(노윤구, 이외신, 2018), 다문화봉사 경험(김남희, 임선영, 2014), 외국인 환자간호 경험(김정아, 최정, 2016) 등 문화적 경험이 있는 경우에 문화 수용 역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희, 2018).

다문화 효능감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주인공이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전문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 중요 요소이다(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신감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시절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남희, 임선영, 2014).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 인식연구(김정아, 최정, 2016; 김경숙, 유미, 2012), 다문화 인식과 태도 연구(김남희, 임선영, 2014),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연구(박진경, 2019;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 연구(선곡유화, 천지영, 2013), 인권의식, 다문화감수성, 다문화효능감 연구(전미순, 황윤영, 2022) 등이 있었다.

2022년 2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62,594명이며 그 중 50세 이상 성인은 28.6%를 차지하고 있다(출민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성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대상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용성과 효능감을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다문화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충남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120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9명을 제외한 1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인식

다문화인식 측정 도구는 임애정(2011)의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 대상 도구로 수정하였으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 였다.

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정석원(2014)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 대상 도구로 수정하였으며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으면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 다문화효능감

다문화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Guyton과 Wesche(2005)가 개발한 도구를 임주용과 오윤자(2010)가 다문화적 효능감척도(MES)를 기반으로 구성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 대상 도구로 수정하였다.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산정하였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다문화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었다.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윤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11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윤리,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 및 연구 도중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문도구의 링크는 학교 사이버캠퍼스의 공지사항에 탑재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90.1%, 학년은 1학년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없음 63.1%, 기독교 30.6%이었고, 다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56.8%, 다문화관련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 80.2%로 나타났다.

2.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효능감은 5점 만점에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문화수용성 3.87점, 다문화인식 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1(9.9)
	Female	100(90.1)
Grade	Freshman	61(55.0)
	Sophomore	19(17.1)
	Junior	29(26.1)
	Senior	2(1.8)
Religion	Protestantis	34(30.6)
	Catholicism	6(5.4)
	Buddhism	1(0.9)
	None	70(63.1)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48(43.2)
	No	63(56.8)
Multicultural volunteer work	Yes	22(19.8)
	No	89(80.2)

Table 2. The level of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Variables	Min.	Max.	M±SD
Multicultural perception	2.68	4.11	3.42±.25
Multicultural acceptance	3.00	4.53	3.87±.32
Multicultural efficacy	3.00	5.00	4.00±.4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은 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이 3학년보다 다문화인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452, p=.019$).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4.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관계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r=.485, p<.0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r=.592, p<.01$)은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효능감($r=.469, p<.01$)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다문화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the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perception	t/F	p	Multicultural acceptance	t/F	p	Multicultural efficacy	t/F	p
		M±SD			M±SD			M±SD		
Gender	Male	3.37±0.20	.695	.458	3.81±0.35	-.568	.571	4.06±0.58	.047	.606
	Female	3.43±0.25			3.87±0.32			3.99±0.43		
Grade	Freshman	3.49±0.20 ^a	3.452	.019*	3.93±0.30	2.511	.063	4.07±0.45	1.179	.321
	Sophomore	3.40±0.31 ^b			3.84±0.33			3.92±0.49		
	Junior	3.32±0.26 ^c			3.74±0.35			3.90±0.41		
	Senior	3.26±0.74 ^d			3.97±0.04			3.89±0.15		
Religion	Christian	3.38±0.24	.572	.635	3.82±0.06	.356	.785	3.92±0.39	.623	.602
	Catholicism	3.43±0.32			3.84±0.12			4.00±0.52		
	Buddhism	3.58			4.00			4.21		
	None	3.44±0.25			3.89±0.33			4.04±0.47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3.41±0.28	.032	.499	3.88±0.35	.525	.601	4.06±0.47	.364	.200
	No	3.44±0.21			3.85±0.30			3.95±0.42		
Multicultural volunteer work	Yes	3.40±0.24	.107	.646	3.95±0.36	1.393	.167	4.08±0.45	.733	.298
	No	3.43±0.25			3.85±0.31			3.97±0.45		

* $p<.05$

Table 4. Correlation of the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Variables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perception	1		
Multicultural acceptance	.485**	1	
Multicultural efficacy	.592**	.469**	1

** $p<.01$

논 의

간호사가 다문화가족들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는 증가하였으나 다문화 간호대상자에 대한 간호 준비가 미비하거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화에 부합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김선희, 2013). 따라서 다문화 간호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다문화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3.42점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3.05점보다 높았고(이은미, 김선희, 2017), 간호대학생의 3.55점(김남희, 임선영, 2014), 3.93점(김은재, 2021)보다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교육 경험(43.2%)이나 COVID 19로 인하여 다문화봉사 경험(19.8%)이 낮게 나타난 결과 다문화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 교육 경험 및 media를 이용한 다문화 접촉 경험이 적을수록 다문화인식 정도가 보수적으로 나타난 결과(박현주 등, 2015)와 유사하므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이 3학년보다 다문화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다문화인식이 20세 미만 집단이 20세 이상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난 김은재(2021)의 연구에서 보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며, 결국 다문화 인식 형성은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폭넓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성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김은재, 202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3.87점/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영미와 석소현(2019)의 연구에서의 다문화수용성 3.60점, 노윤구와 이외선(2018)의 연구에

서의 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의 소통이 활발하므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기성세대 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박명숙, 2020)을 알 수 있다. 향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이나 봉사참여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다문화활동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효능감은 5점 만점에 4.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김경희, 2018)에서의 다문화효능감 3.9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효능감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전혜경, 고영, 2020)와 성별과 학년, 해외체류 경험 및 외국인 친구 유무와 다문화효능감이 유의하게 분석된 연구(김경희, 2018; 김남희, 임선영, 2014)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해마다 다문화와 간호라는 교과목으로 다문화교육경험은 제공되었지만 다문화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다문화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문화가족과의 교류를 확장시켜야 한다(전미순, 황운영, 2021)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인식은 다문화수용성($r=.485, p<.01$), 다문화효능감($r=.592, p<.01$)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영미와 석소현(2019), 김남희와 임선영(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간호 실무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도 향상된다는 김남희와 임선영(2014), 김은재(202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와 다름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다문화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조영미, 석소현, 2019), 문화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을 고취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효능감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경험이 요구되며 아울러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이 효율적이며 전인적인 간호 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김은재, 202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r=.469$, $p<.01$)를 나타냈으며, 다문화 경험과 인식, 다문화 효능감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은재, 2021) 결과가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간호제공자들이 간호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Lee, 2017)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다문화관련 직간접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다문화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 간 상관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하는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다문화 간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개방적 자세로 상호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효능감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정착되는 이 시기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 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문화 다양성을 지닌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므로 간호학과 입학 후 저학년 때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과 다양한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접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관련 교육도 일회성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다문화 간호대상자에게 맞춤형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일 지역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효능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2012).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11(3), 5-25.
- 김경숙, 유미(2012). 간호대학생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인식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5), 531-539.
- 김경희(2018).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211-219. <http://doi.org/10.5762/KAIS.2018.19.8.211>
- 김남희, 임선영(2014).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7(4), 169-184. <http://dx.doi.org/10.14328/MES.2014.12.31.169>
- 김선희(2013). 간호사의 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43(1), 102-113.
- 김은재(202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

- 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9(2), 1511-1519. <http://doi.org/10.15205/kschs.2021.12.31.1511>
- 김정수, 박진옥(2015). 장교 후보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군대에 관한 태도. *민족문화논총*, 61, 121-146.
- 김정아, 최정(2016).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다문화교육연구*, 9(4), 67-88.
- 김정희(2018). *군 간부의 다문화 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윤구, 이외선(2018).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에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373-381. <http://doi.org/10.14400/JDC.2018.16.11.373>
- 박명숙(202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115-146. <http://doi.org/10.15300/jcw.2020.74.3.115>
- 박진경(2019). 간호대학생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1), 58-68.
- 박현주, 성정화, 손혜란, 이민영, 조현민, 박신규(2015).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구 지역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7, 92-17.
- 선곡유화(2016).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 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이은미, 김선희(2017).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민감성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459-468. <http://doi.org/10.5762/KAIS.2017.18.4.459>
- 임애정(2011). *치과위생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 조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주용, 오윤자(2010). 청소년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 *대한가정학회지*, 48(10), 143-157.
- 전미순, 황윤영(202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경험과 인식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11(2), 1-8. <http://doi.org/10.33502/JKSMH.11.1.001>
- 전미순, 황윤영(2022). 간호대학생의 인권인식과 다문화감수성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12(1), 1-9. <https://doi.org/10.33502/JKSMH.12.1.001>
- 전혜경, 고영(2020).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동서간호연구지*, 26(2), 157-166.
- 정석원(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미, 석소현(2019).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190-197. <http://doi.org/10.5392/JKCA.2019.19.10.190>
- 천지영(2013). *일반사회전공 교육대학원생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적 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픽은희, 박재순(2013).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3(5), 690-696.
- 한진순(2019). *교회의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ek, S. S., Kim, H. J., Kim, J. S., & Lee, G-C. (2016). Factors influencing on cultural competenc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Korea.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9(S1), 1-10. <http://doi.org/10.17485/ijst/2016/v9iS1/109806>
-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4), 21-29. https://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
- Lee, S. K. (2017). Empathy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Teacher Education*, 33(2), 263-281.